경기

○ **서울 10월 산업생산지수, 전년동월대비 감소**
- 서울지역의 생산지수는 98.1%로 전년동월대비 6.7% 감소
-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증가, 재고 증가로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

○ **서울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**
-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7.0%, 대형마트 5.0% 증가로 전체적으로 5.7% 증가

○ **서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**
- 생활물가 전년동월대비 3.4%,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3.4% 각각 상승

고용

○ **서울의 10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**
-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.4%로, 전년동월대비 0.3%p 증가

○ **서울의 10월 청년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**
-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.2% 증가하였으며,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.7%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

○ **서울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.7%p 상승한 59.9%로 전국과 보합**

○ **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.6%p 하락한 4.0%로 전국대비 1.1%p 차**

부동산

○ **10월 주택매매가격은 4개월 연속 보합세**
- 강북지역(-0.1%)은 노원구(-0.1%), 용산구(-0.1%) 중심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합
- 강남지역(-0.1%)은 아파트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양천구(-0.4%), 강남구(-0.2%)를 중심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하락

○ **10월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 크게 둔화**
- 강북지역(0.9%)은 종로구(1.4%), 노원구(1.3%)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
- 강남지역(0.8%)은 강동구(1.8%), 송파구(1.1%)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

금융

○ **9월 기준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4개월 연속 증가세**
-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55조 1,80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9조 6,248억원 (1.76%) 증가

○ **서울의 10월 신설·부도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**
- 신설법인 수는 1,767개로 전년동월대비 4.0%(112개), 부도업체 수는 40개로 전년동월대비 16.8%(8개) 감소

○ **서울 10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둔화**
- 서울의 수출은 48.4억 달러, 수입은 9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6.42%, 9.4% 증가
- 수출 1순위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

| 생·산 |

서울의 10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, 감소폭 축소

■ 서울의 10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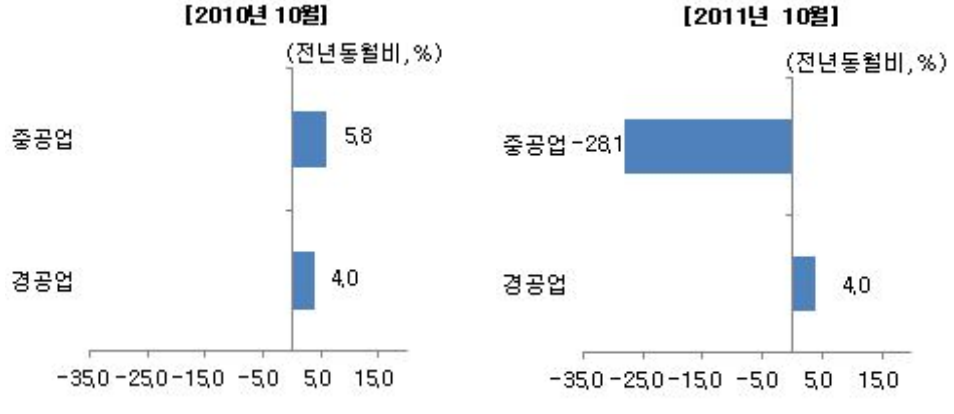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10월 산업생산지수는 98.1(2005=100)로 전년동월대비 5.8% 감소
-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8.1% 감소,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4.0% 증가
- 전년동월대비 섬유제품(45.6%), 의복 및 모피(3.3%)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계장비(-46.3%), 전기장비(35.3%), 종이제품(-87.7%)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중공업 부문의 감소가 서울의 산업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

■ 전국의 10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전국의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.2% 증가, 전월대비로는 0.7% 감소
-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(-17.7%), 전기장비(-6.6%) 등은 부진하였으나 자동차(11.7%) 등으로 광공업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·임대(-3.8%), 협회·수리·개인(-3.2%) 등에서 감소하였으나, 금융·보험(2.1%)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·정보(1.9%) 등 증가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산업생산(중공업, 경공업) 증감률

| 출하 · 재고 순환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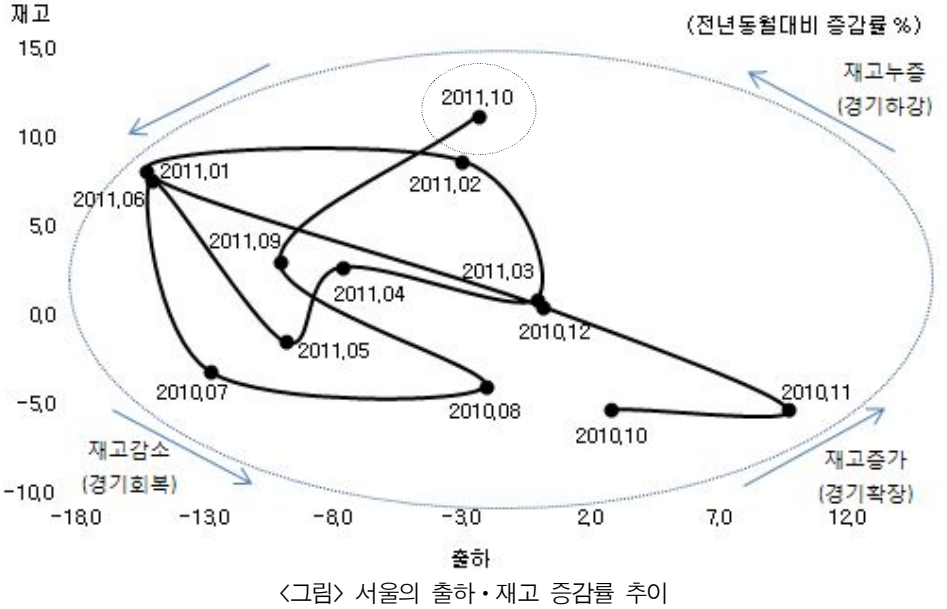
서울의 10월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

■ 서울의 10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출하 및 재고 각각 증가

- 서울의 10월 재고지수는 165.1(2005=100.0)로 전년동월대비 11.1% 감소
- 전년동월대비 기계장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음향 통신 가죽 및 신발 등에서 증가
- 출하 증가, 재고 증가로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(<Box> 참조)

〈참고〉 출하·재고 순환 상관표

경기수축기	경기회복기	경기확장기	경기하강기
출하↓	출하↑	출하↑	출하↓
재고↓	재고↓	재고↑	재고↑
재고조정	재고감소	의도된 재고증가	재고누증



〈그림〉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| 소 · 비 |

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

■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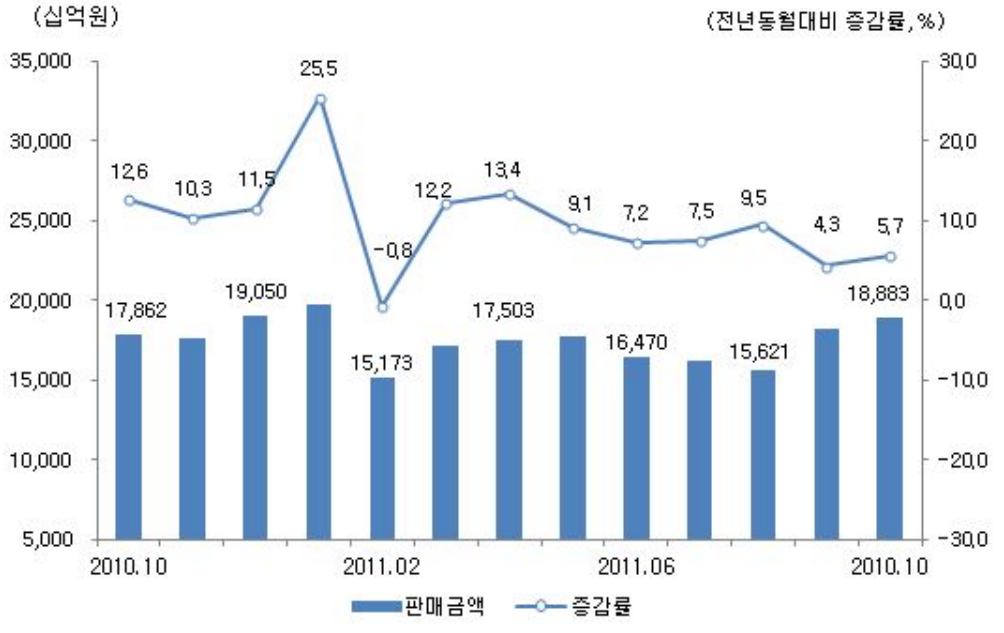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8,884억원로 전년동월대비 5.7% 증가
-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7.0%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5.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추석 제수용품 판매 증가와 가을정기세일 등으로 인한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■ 서울의 10월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중 패션용품이 1위

- 백화점 판매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(44.3%)이며, 식품(26.6%), 생활용품(17.8%)인 것으로 나타났음
- 권역별로는 4권역(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)이 36.9%인 6천963억원을 판매하였고, 다음으로 3권역(동작, 관악, 영등포, 금천, 구로, 양천, 강서), 1권역(종로, 중구, 용산, 마포, 서대문, 은평), 2권역(광진, 성동, 동대문, 중랑, 성북, 노원, 강북, 도봉) 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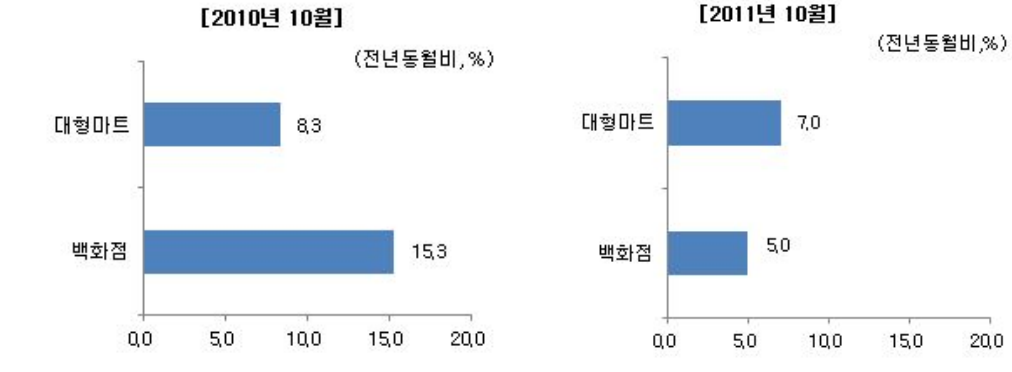
■ 전국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전국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.5% 증가
-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.5% 증가, 대형마트는 7.7% 증가
- 유형별로는 컴퓨터·통신기기, 가전제품,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2.9% , 오락, 의복 등의 준내구재 3.5% 증가, 식료품,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3.1% 증가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대형소매전 판매 추이

| 물·가 |

서울의 10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

■ 서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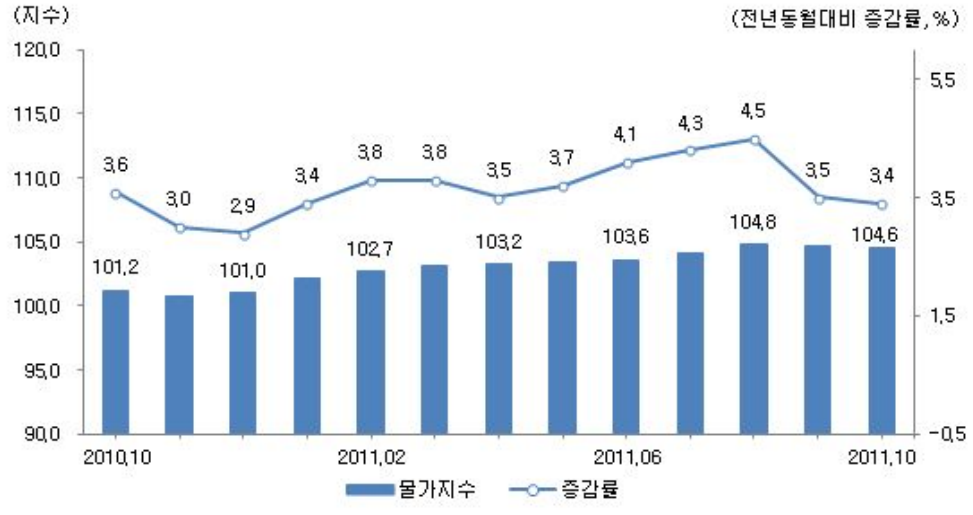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.6(2010년=100.0)으로 전월대비 0.7%, 전년동월대비 3.4% 각각 상승
- 상품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.4% 상승, 그 중 농축수산물은 0.1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 또한, 서비스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.8% 상승하였으며 그 중 집세는 5.2%, 공공서비스 1.1%, 개인서비스 2.7% 각각 상승

■ 서울의 10월 전년동월대비 생활물가지수, 신선식품지수 각각 상승

- 소비자들의 기본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.4% 상승
- 생선류, 채소류, 과실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.4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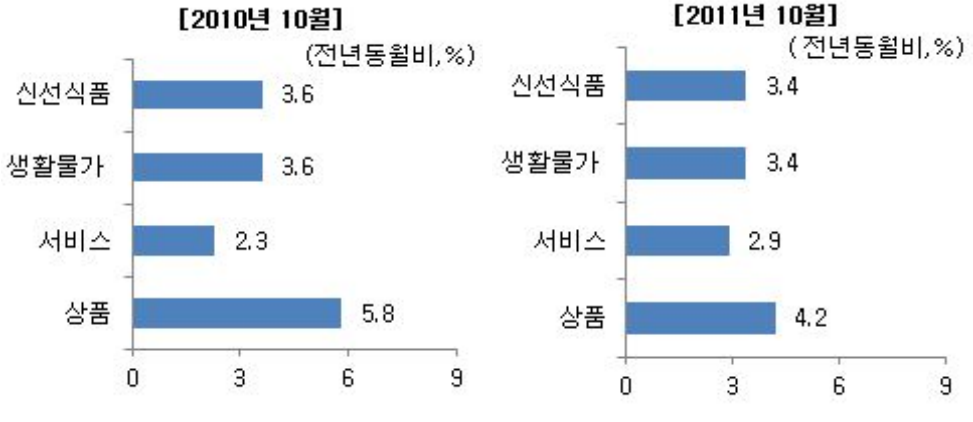
■ 전국 10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전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2.5(2005년=100)로 전월대비 0.2% 하락, 전년동월대비로는 3.9% 상승하여 201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%대를 시현
-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2% 하락, 전년동월대비 3.2% 상승, 신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.6%, 전년동월대비 14.0% 각각 하락
-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, 강원은 변동이 없으며, 서울, 경기 등 9개 시도는 0.1~0.2%씩 하락하였고, 충북, 충남 및 경북은 0.3%씩 하락, 전북은 0.4% 하락, 전남과 대구는 0.5%씩 하락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 (2005=100)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

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

- '서울의 신선식품 6개 품목'은 1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,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방물가정보공개서비스가 개편됨에 따라 내용을 수정·보완 중입니다.
- 또한 10월의 경우 일부품목(배추, 무, 감자, 콩 등)전월에 대한 자료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2012년 1월부터 새롭게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| 경 · 제 · 활 · 동 · 인 · 구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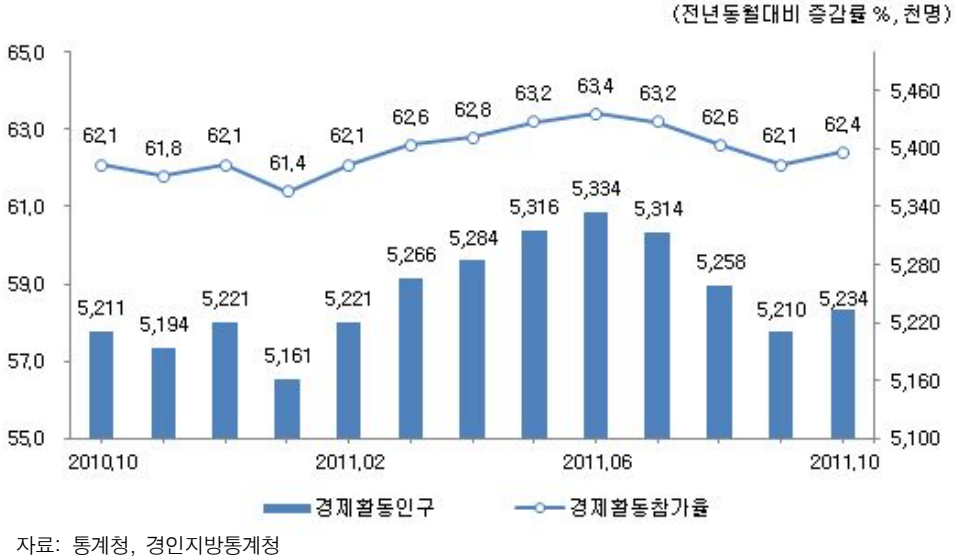
서울의 10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

■ 서울의 10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서울의 10월 15세 이상 인구는 8,38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명(-0.2%)이 감소
- 경제활동인구는 5,2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(0.4%)이 증가
- 경제활동참가율은 62.4%로 전년동월대비 0.3%p 상승
- 비경제활동인구는 3,1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천명(-1.2%)이 감소

■ 전국의 10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전국의 10월 15세이상 인구는 4,116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4천명(1.1%) 증가, 경제활동인구는 2,540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만5천명(1.6%) 증가
- 경제활동참가율은 61.7%로 전년동월대비 0.3%p 상승
-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.6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상승하였고, 여자는 50.4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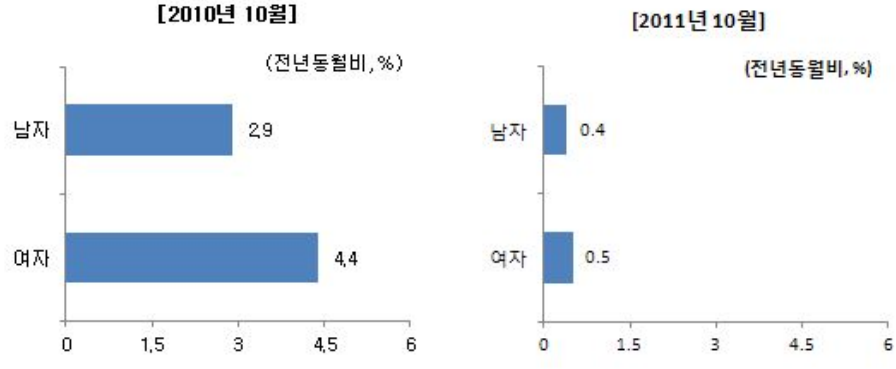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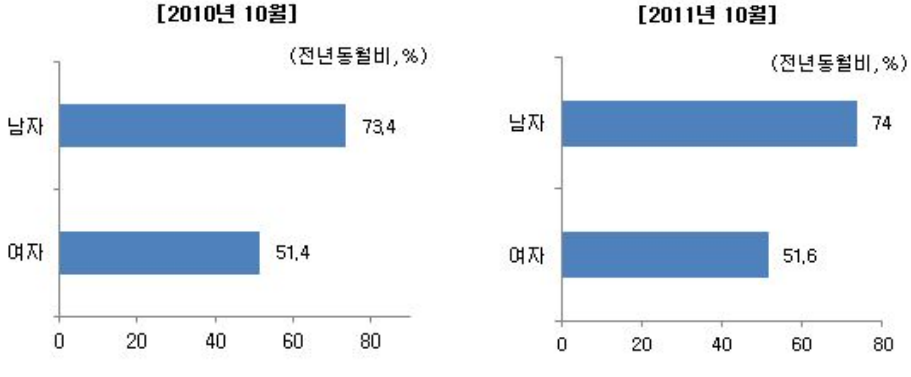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

■ 서울의 10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, 남자는 3,001천명, 여자는 2,2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.4%, 여자는 0.5% 각각 증가
-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4.0%, 여자는 51.6%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.4%p, 여자는 0.2%p로 각각 증가



<그림>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



<그림>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

| 취 · 업 · 자 |

서울의 10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

■ 서울의 10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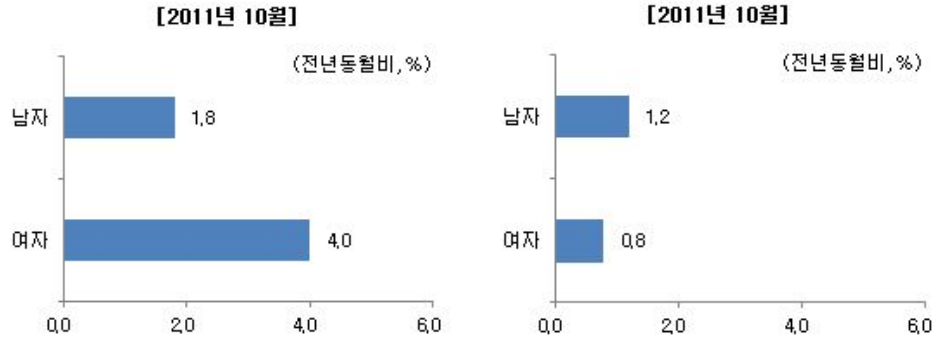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10월 취업자는 5,0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명(1.0%)이 증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,866천명, 여자는 2,15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5천명(1.2%), 여자는 17천명(0.8%)이 각각 증가
- 서울과(1.0%) 전국(2.1%)의 취업자 수는 1.1%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■ 전국의 10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전국의 10월 취업자는 2,467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만1천명(2.1%) 증가
- 성별로 보면 남자는 1,433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8천명(1.8%) 증가하였고, 여자는 1,034만명으로 25만3천명(2.5%) 증가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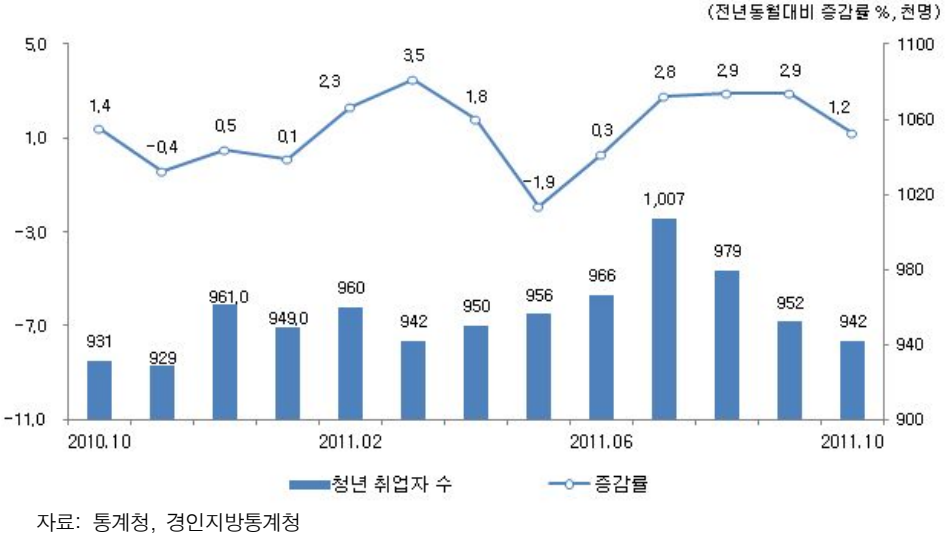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



<그림>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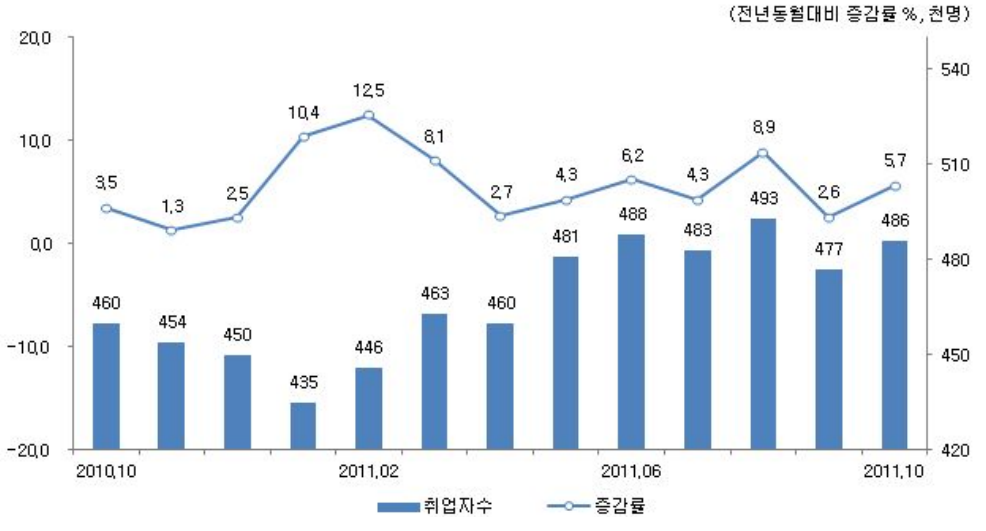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10월 청년층(15세~29세),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증가

- 서울의 10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.2% 증가하여 3개월 연속 2.0%를 유지하다 1.0%로 감소폭 축소
- 서울의 10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.7% 상승하여 감소폭 증가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(15세~29세)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(60세 이상) 추이

■ 산업별로 농림어업, 전기·운수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각각 증가

-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1천명(11.4%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27천명(3.4%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61천명(3.2%)이 각각 증가
- 제조업 23천명(-4.2%), 도소매·음식숙박업 12천명(-0.9%), 건설업 2천명(-0.5%)은 각각 감소

■ 직업별로 사무종사자 및 관리자·전문가 각각 증가

-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134천명(15.2%), 관리자·전문가 19천명(1.3%)이 각각 증가
-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(-4.8%), 서비스·판매종사자 50천명(-4.1%), 기능·기계조작·조립·단순종사자 50천명(-3.5%)은 각각 감소

■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감소, 임금근로자 증가

-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7천명(-0.7%), 무급가족종사자는 11천명(-6.2%)이 각각 감소
-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88천명(8.9%)이 증가하였으나, 임시근로자는 93천명(-7.5%), 일용근로자는 26천명(-5.9%)이 각각 감소

| 고·용·률·및·실·업·률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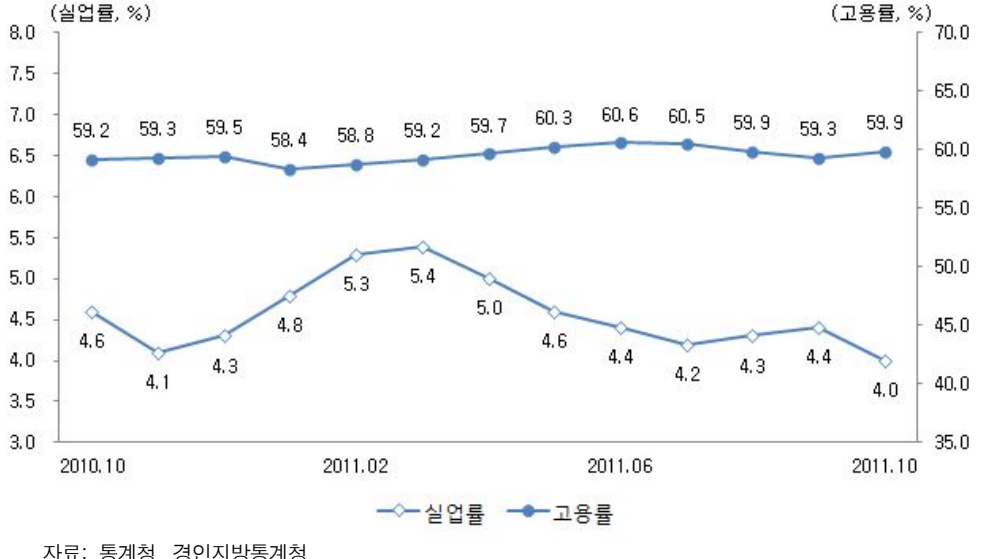
서울의 10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상승, 실업률 하락

■ 서울의 10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서울의 10월 고용률은 59.9%로 전년동월대비 0.7%p 상승
-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.7%로 전년동월대비 1.2%p 상승, 여자는 49.9%로 0.4%p 상승
-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(59.9%)과 보합

■ 서울의 10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

- 서울의 10월 실업자는 21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천명(-12.0%)이 감소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13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천명(-14.8%)이 감소하였고, 여자는 75천명으로 5천명(-6.4%)이 감소
- 실업률은 4.0%로 전년동월대비 0.6%p 하락, 전국대비(2.9%) 1.1%p 차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4.5%로 전년동월대비 0.8%p 하락, 여자는 3.4%로 0.2%p 하락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| 주 · 택 · 매 · 매 · 가 · 격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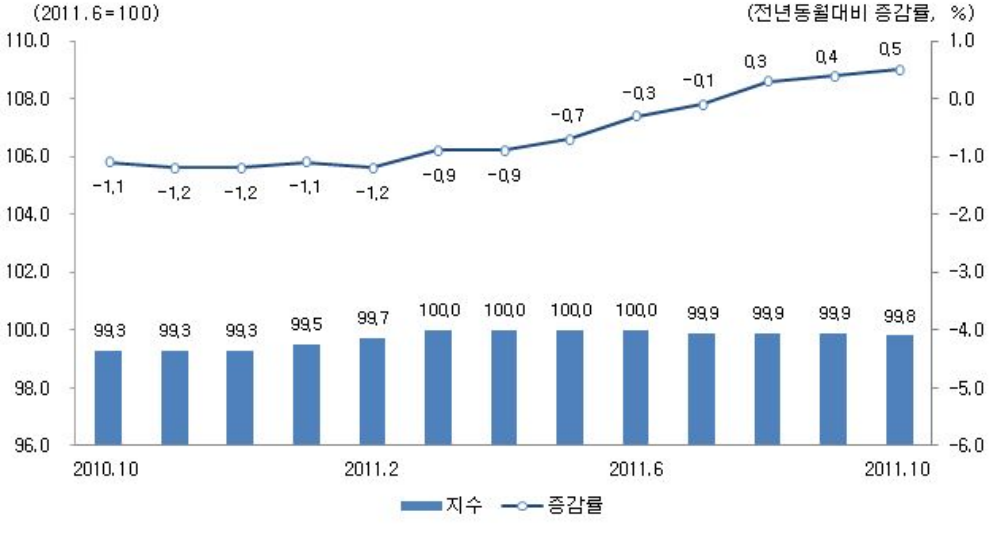
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 4개월 연속 보합세

■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보합

-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4개월 연속 0.0%로 보합
-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.1% 하락한 가운데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0.1% 상승,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보합

■ 전국의 10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둔화

-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.4% 상승하였고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에 이어 공급물량 부족과 매수심리 호전 등으로 각각 전월대비 0.6%, 0.9%로 상승세 지속 가운데 상승폭 둔화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〈그림〉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■ 강북지역은 광진구와 성북구를 중심으로 상승 지속 가운데, 노원구와 용산구는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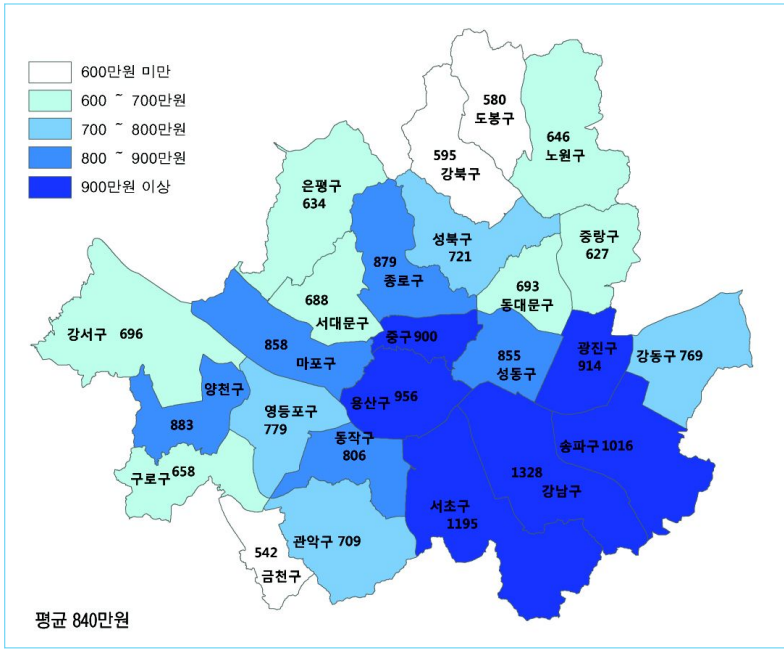
- 광진구는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가 단독과 연립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.2% 상승
- 용산구는 대출 규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매매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전월대비 0.1% 하락
- 노원구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제에 대한 우려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, 월계동, 하계동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.1% 하락

■ 강남지역은 관악구와 동작구를 중심으로 상승하고, 양천구와 강남구는 하락하며 전월대비 0.1% 하락

- 관악구는 연립주택의 매수 전환수요 증가 및 임대사업을 위한 단독주택 매입수요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.3% 상승
- 양천구는 매수자들의 시장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거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매물적체로 전월대비 0.4% 하락
- 강남구는 주택가격 하락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급매물이 적체되는 가운데, 거래부진으로 전월대비 0.2%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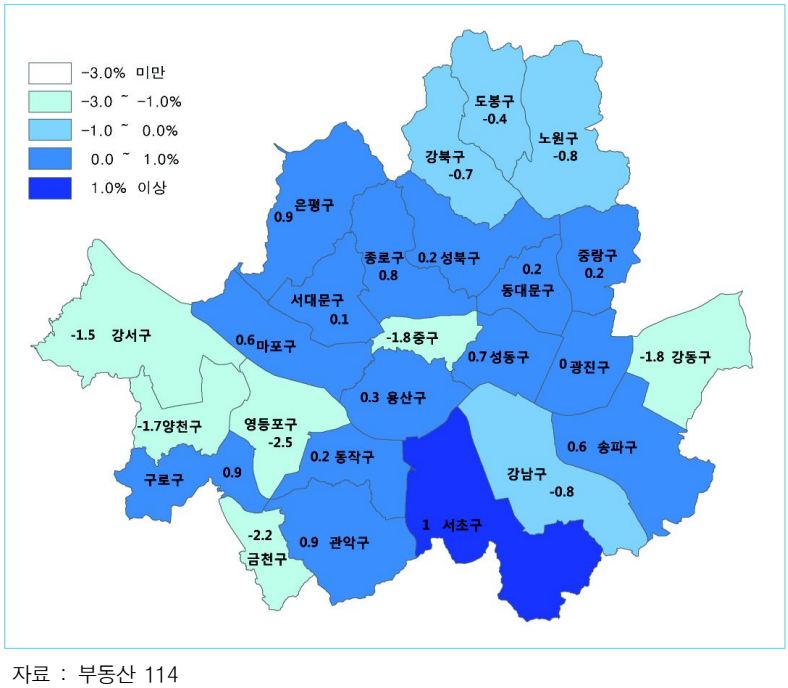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

-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87.0만원으로 전월대비(1790.0원)대비 하락하여 8개월 연속 하락세
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(3,246만원), 서초구(2,879만원), 용산구(2,548만원), 송파구(2,362만원), 양천구(1,904만원), 광진구(1,870만원), 강동구(1,815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(990만원), 도봉구(1,093만원), 중랑구(1,128만원), 강북구(1,135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자료 : 부동산 114

〈그림〉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



자료 : 부동산 114

〈그림〉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| 주 · 택 · 전 · 세 · 가 · 격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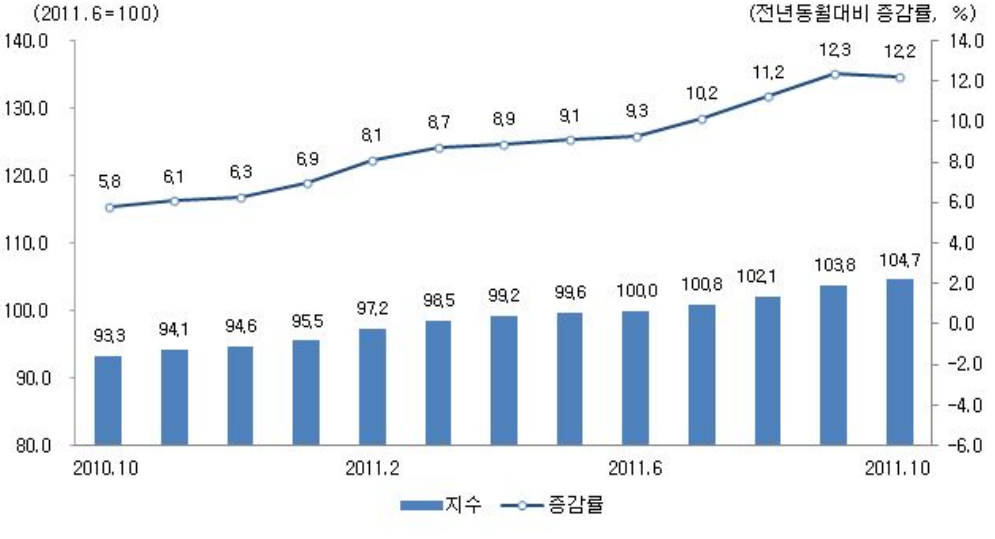
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크게 둔화

■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 둔화

-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.9%로 상승폭 크게 둔화
- 주택유형별로 아파트, 단독주택, 연립주택 모두 전월대비 1.0%, 0.4%, 0.8% 상승하며 모든 유형에서 상승폭 축소

■ 전국의 10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

-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이 접어들고 전세 수급불균형이 다소 완화되면서 전월대비 0.9%를 보이는 가운데,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각각 전월대비 각각 0.8%, 1.0%로 상승폭 축소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〈그림〉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■ 강북지역은 종로구, 노원구에서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보이며 전월대비 0.9% 상승

- 종로구는 직장인 및 신혼부부 수요 등이 꾸준히 유입되고 기존 임차인들의 재계약 선호도가 높아지며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월대비 1.4% 상승
- 노원구는 비교적 저가의 소형 아파트 물량을 중심으로 신혼부부, 직장인의 유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.3% 상승

■ 강남지역은 강동구, 송파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.8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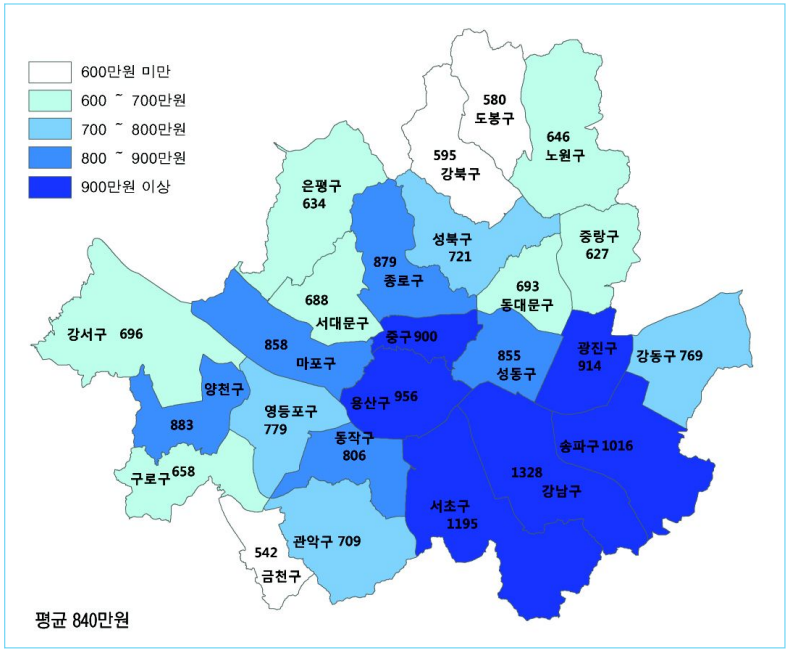
- 강동구는 기존 임차인의 재계약으로 물량 품귀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, 강남과 송파지역에서 유입되는 수요와 신혼부부 수요 등이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.8% 상승
- 송파구는 강남구 청실 재건축 이주 수요, 예비 신혼부부 수요 등으로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월대비 1.1% 상승

■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

-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40.62만원으로 전월대비(833.42만원) 상승
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(1,328만원), 서초구(1,195만원), 송파구(1,016만원), 용산구(956만원), 광진구(914만원), 중구(900만원), 양천구(883만원), 종로구(878만원), 마포구(858만원), 성동구(855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(542만원), 도봉구(580만원), 강북구(595만원), 중랑구(627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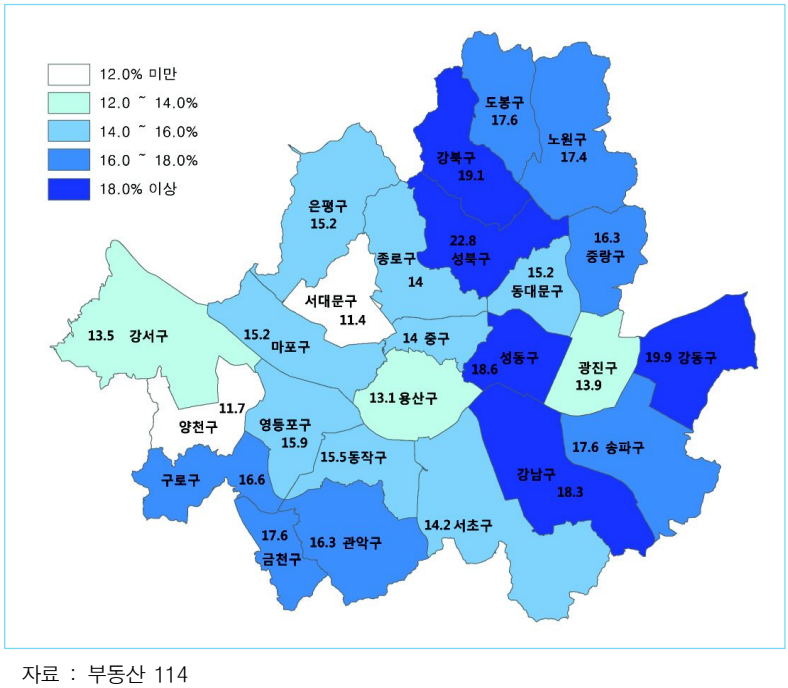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10월 아파트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상승

- 10월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은 50.5%로 전월(49.9%)보다 0.6%p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
-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60.0% 보다 9.5%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(9.8%p)보다 좁혀짐
-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53.2%, 강남 48.4%로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·북간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은 상승세 지속



자료 : 부동산 114

〈그림〉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



자료 : 부동산 114

〈그림〉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| 시·중·자·금·사·정 |

10월 국고채 소폭 상승한 가운데, CD 금리 보합세

■ 10월 중 국고채 전월대비 소폭 상승

- 국고채(3년)금리는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며 전월대비 3.47% 기록

■ 회사채 금리 전월대비 상승, CD 금리는 전월대비 보합

- 회사채(3년) 금리는 전월대비 0.05%p 상승하여 8월 중 4.29%로 마감
- 10월 중 CD(91일) 금리는 전월대비 보합으로 3.58%로 마감

■ 장·단기 금리차는 전월대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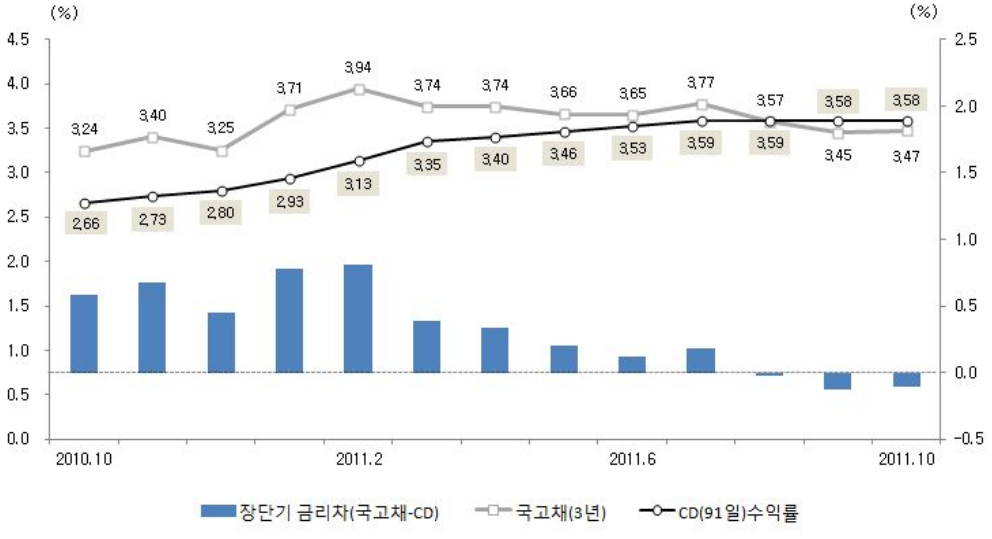
- 10월 중 장·단기 금리차는 CD(단기) 금리의 보합에 국고채(장기) 금리의 소폭상승으로 전월대비 0.02%p 상승하여 -0.11%로 마감

■ KOSPI 지수 전월대비 상승

- 10월 중 코스피는 그리스 국가부도 우려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해결 기대, 미국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여 1825.88p로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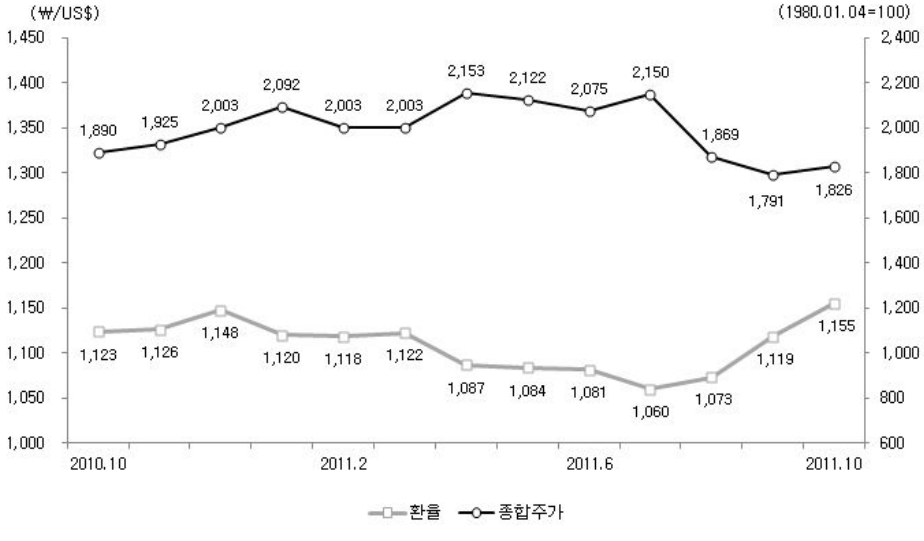
■ 10월 중 원/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상승

- 원/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36.8원 상승하여 10월 중으로 1,155.5원으로 마감



주 : 기간 중 평균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주요 금리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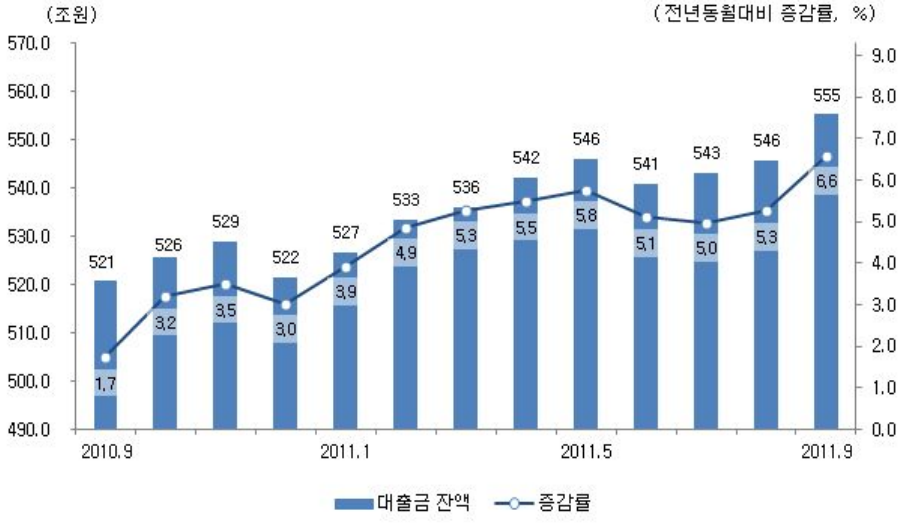


주 : 기간 중 평균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

■ 9월 기준 서울지역 전체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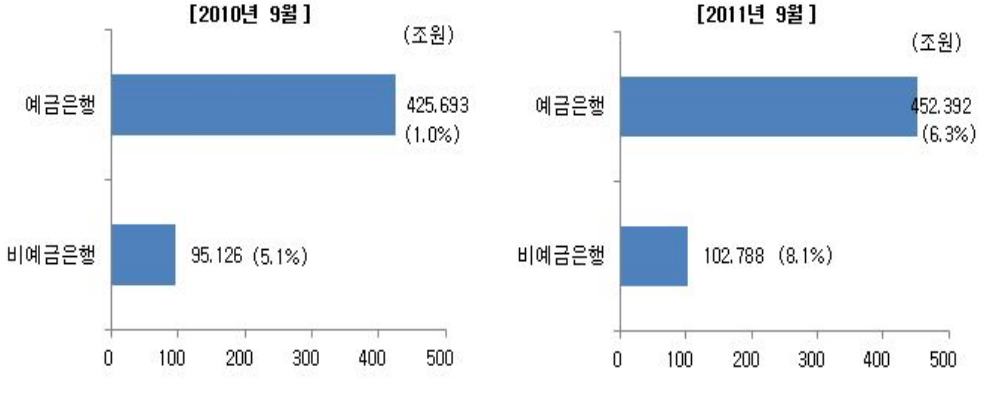
- 9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55조 1,80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9조 6,248억원(1.76%) 증가
- 9월 중 전국의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,392조 391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 9,222억원(0.79%) 증가



주 :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



주 : ( 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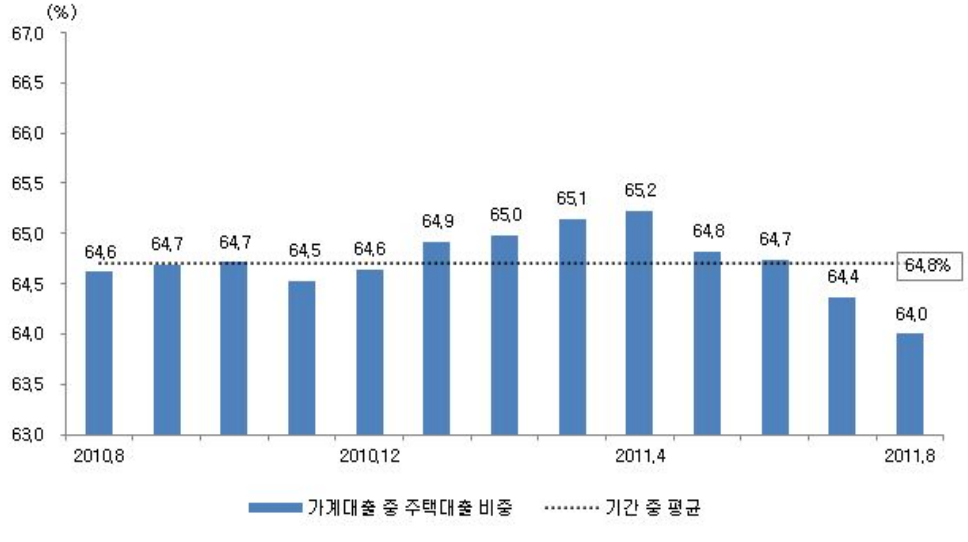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■ 8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

- 8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174조 584억원으로 전월대비 892억원(0.5%)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2조 255억원(64.0%)으로 전년동월대비 4.2% 증가

주 :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주택대출의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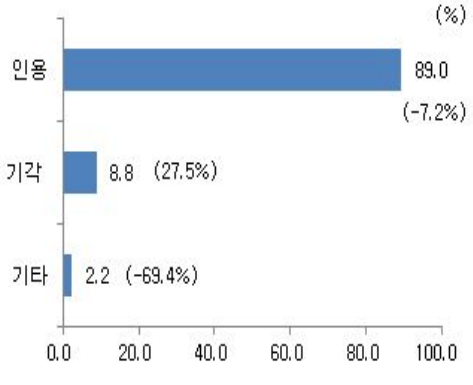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시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■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

- 10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,074명으로 전월대비 3.3% 증가, 전년동월대비 25.9% 감소
-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8.8%로 전월대비 116.9% 증가하였고 면책 기각률은 6.0%로 전월대비 122.0% 증가

자료 : 대법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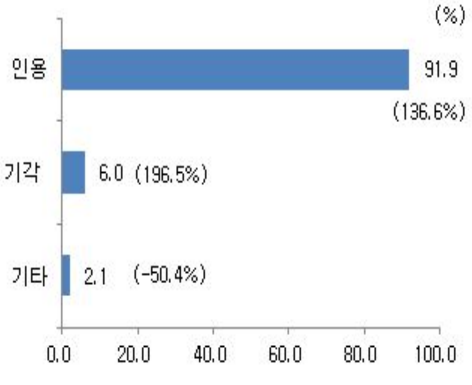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

주 :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,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, ( 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대법원

〈그림〉 10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



〈그림〉 10월 면책 처리현황

|신·설·및·부·도·법·인·동·향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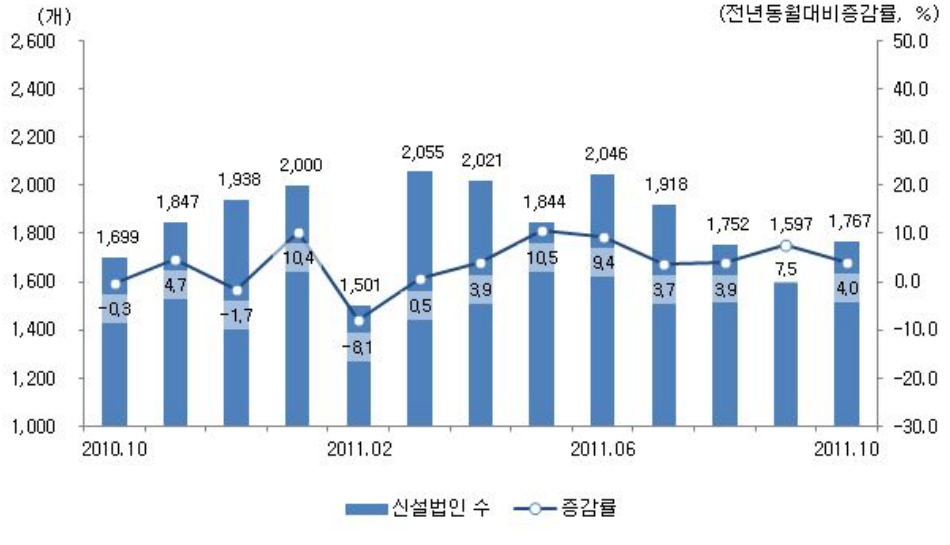
서울의 10월 신설법인 5개월만에 반등

■ 서울의 10월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크게 증가, 제조업 신설법인 증가

-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,767개로 전월대비 10.6%(170개) 증가, 전년동월대비 4.0%(68개) 증가
-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전월대비 각각 6.9%(158개), 12.1%(14개) 증가한 반면,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1.2%(1개)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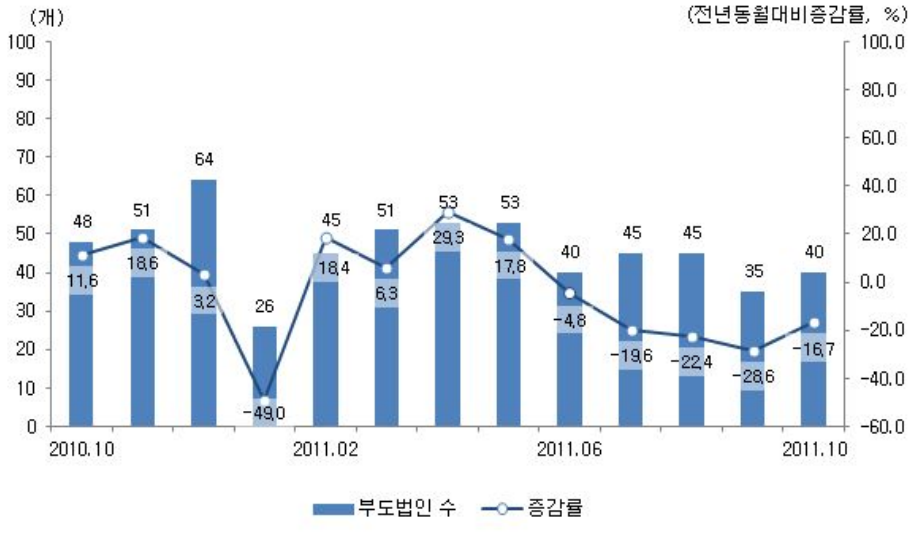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10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증가,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부도법인 증가

-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0개로 전월대비 14.3%(5개) 증가, 전년동월대비 16.8%(8개) 감소
-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66.7%(8개) 증가한 반면, 제조업은 전월대비 10.0%(1개) 감소하고 건설 및 설비업은 보합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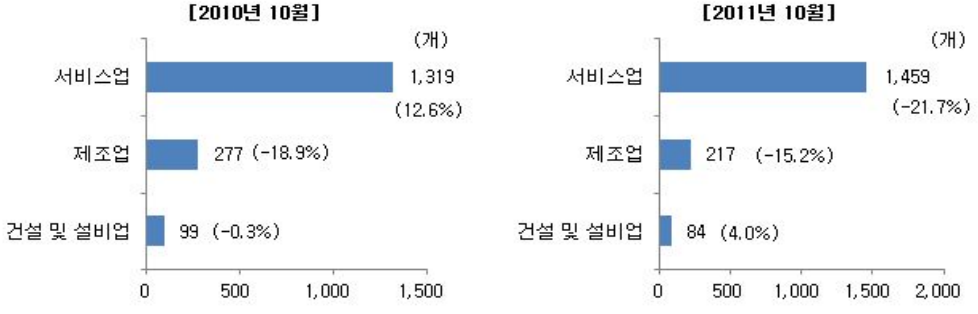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

〈그림〉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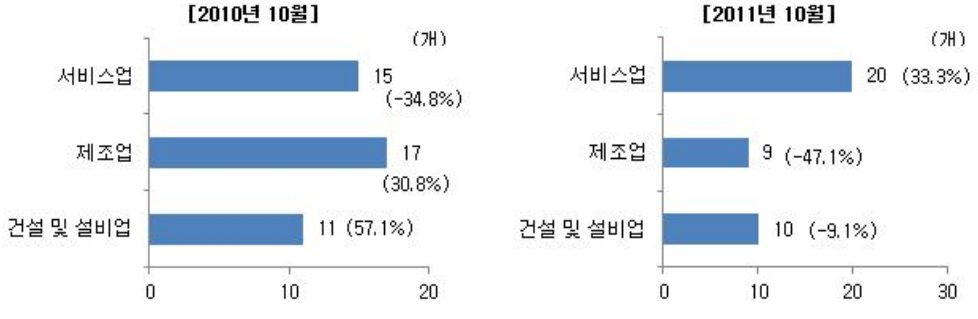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

〈그림〉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

주 : ( 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〈그림〉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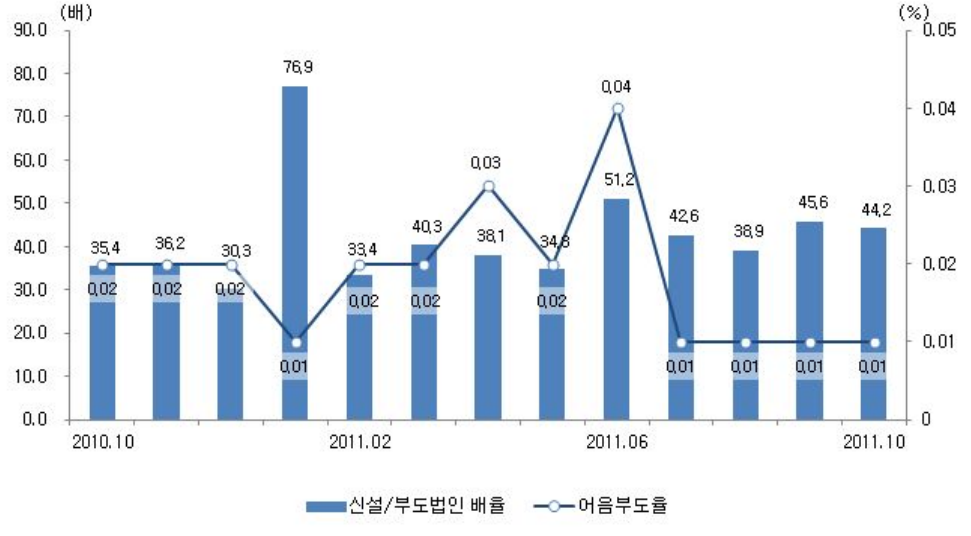


주 : ( 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〈그림〉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

■ 서울의 어음부도율 4개월 연속 보합세

- 10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전월과 동일한 0.01%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/부도법인 배율은 44.2배로 전월(45.6배)보다 하락



자료 : 중소기업청,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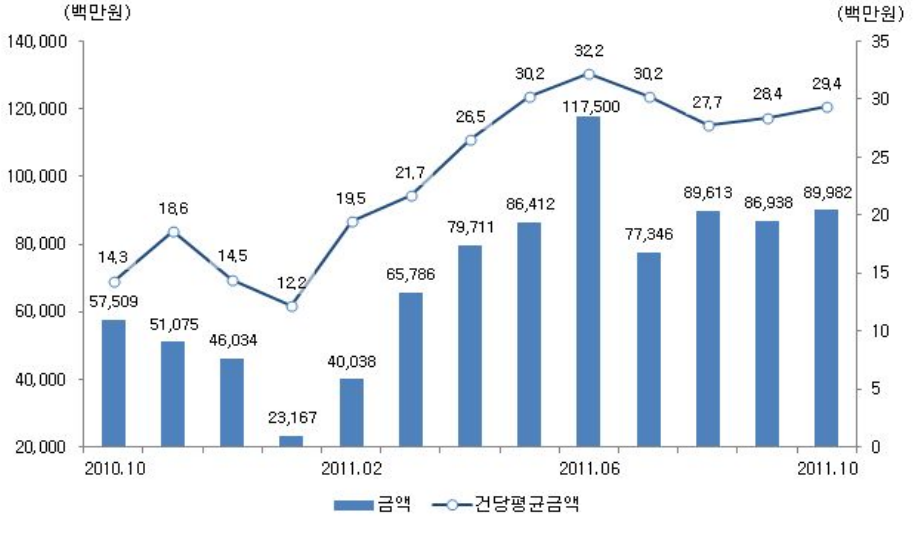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/부도법인 배율 동향

| 신·용·보·증·동·향 |

서울의 10월 신용보증 공급금액 중기업 중심으로 증가

■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 전월대비 증가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0월 중 3,062건, 89,982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0.1%, 보증금액 3.5%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.5% 증가
-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23.7% 감소하였고, 금액과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각각 56.5%, 29.4% 증가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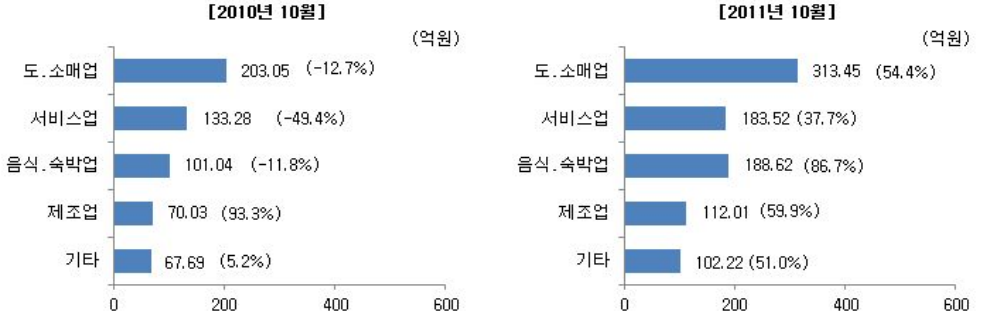
■ 제조업 지원 금액 및 건수 비중 전월대비 상승

- 10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12.4%로 전월(11.9%)대비 0.5%p 증가한 반면, 도·소매업종에 대한 지원은 34.8%로 전월(38.6%)대비 3.8%p 감소
- 보증건수 기준 시 음식·숙박업종은 24.9%로 전월(23.0%)대비 1.9%p 증가하였으며, 도·

소매업종은 33.7%로 전월(36.1%)대비 2.4%p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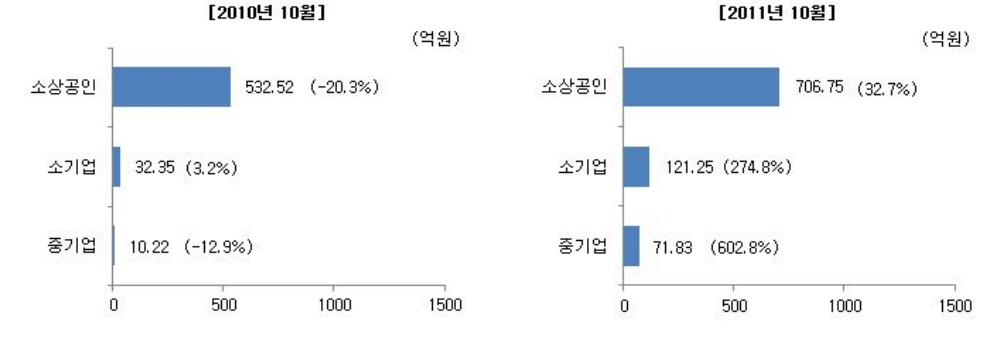
■ 중기업 지원 건수 및 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

-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78.5%, 건수기준 92.0%로 전월대비 각각 2.3%p, 0.2%p 감소
- 한편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3.5%, 건수기준 4.9%로 전월대비 각각 0.3%p, 0.8%p 감소한 반면 중기업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.0%, 건수기준으로는 3.1%로 전월대비 각각 2.6%p, 1.0%p 증가



주 : ( 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

주 : ( 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| 수·출·입·동·향 |

서울의 10월 수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중심으로 증가

■ 서울의 10월 수출·입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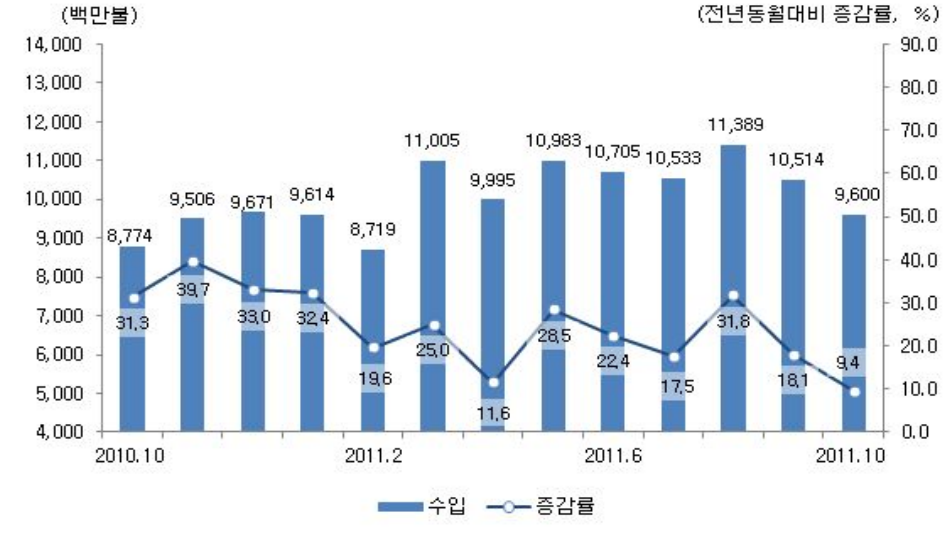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.4% 증가한 48.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9.4% 증가한 96억 달러 기록
-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.0% 증가한 468.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5.6% 증가한 427.5억 달러 기록

■ 서울의 10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

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,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623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, 무선통신기기, 편직물, 반도체 등 순
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, 석유제품이 794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, 의류, 컴퓨터, 자동차 등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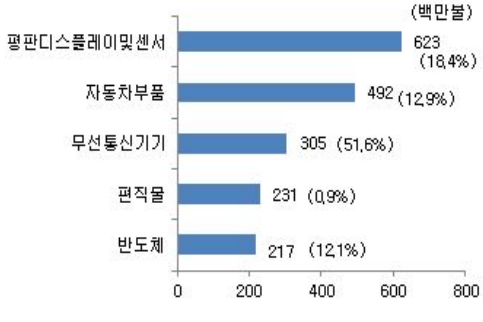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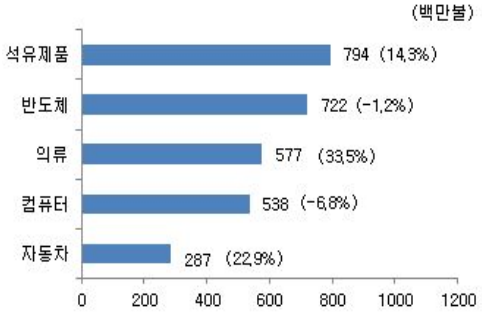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





주 : ( 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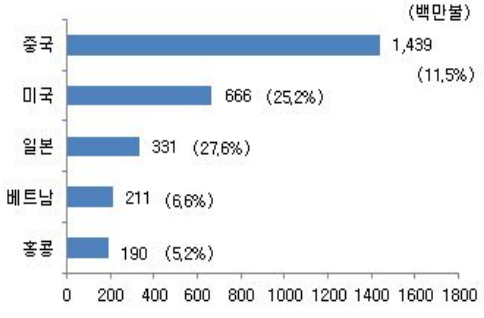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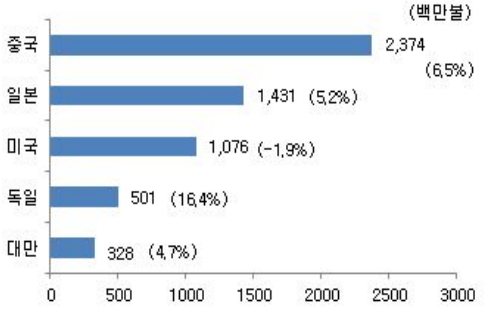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10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〈그림〉 10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■ 서울의 10월 수출·입국 1순위는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1.5% 증가한 1,439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, 일본, 베트남, 홍콩 순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6.5% 증가한 2,374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, 미국, 독일, 대만 순





주 : ( 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10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〈그림〉 10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

〈표〉 10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

구분	순위	품목명	수출		품목명	수입	
			천불	증가율		천불	증가율
미국		**합계**	**665,503**	**25.2**	**합계**	**1,076,074**	**-1.9**
	1	무선통신기기	178,478	59	기초유분	69,645	116.5
	2	자동차부품	130,335	7	항공기 및 부품	60,790	-57.9
	3	고무제품	77,137	31.5	곡실류	60,761	50.2
싱가포르		**합계**	**57,268**	**-3.4**	**합계**	**281,509**	**-5.6**
	1	반도체	15,809	-20.1	반도체	118,711	-26.4
	2	석유제품	5,410	381.4	컴퓨터	48,838	32.6
	3	전자응용기기	2,395	116.9	기초유분	17,594	74.5
페루		**합계**	**5,206**	**-56.4**	**합계**	**8,499**	**364.5**
	1	건설광산기계	807	364.6	금은및백금	6,829	1,979.90
	2	합성수지	674	-70.6	수산가공품	487	89.2
	3	고무제품	641	60	의류	423	-44.3
칠레		**합계**	**13,482**	**16.8**	**합계**	**48,916**	**-5.3**
	1	자동차	4,066	65	동제품	17,419	-22.6
	2	고무제품	1,725	6.8	제지원료	9,358	-2.4
	3	편직물	1,659	159.1	육류	9,076	-6.9
인도		**합계**	**83,659**	**-15.9**	**합계**	**185,472**	**13.5**
	1	합성고무	18,111	10.8	석유제품	100,051	27.2
	2	자동차부품	11,592	-47.2	천연섬유사	16,696	7.6
	3	합성수지	8,591	-12.1	기초유분	16,204	-